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허 선사(6)

문되, 외상 설법은 안하십니까?

답하되, 곡차나 주면 그 핑계로 횡설수설...

경허 스님이 천장암에 머물던 어느 날, 시자가 스님에게 여쭙었다. "스님은 누구든지 곡차에 안주를 가지고 와야 설법을 하시고, 그날 와서 풀으면 소나 닭 보듯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원일이십니까? 스님께서는 선불이라야 설법을 하시고 외상설법을 아니 하시는 것입니까?"

"에이, 아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자리는 본래구족(本來具足)하여 사람사람이 다 구족하게 갖고 있거늘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곡차나 주면 이것을 핑계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냐." (경허집)

"한 법도 설한바가 없다면 경전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있다면 부처님을 비방한 것"

경허 스님은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수행자들이 불법의 도리를 물으면 종일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대신 누구든지 곡차를 울리며 법문을 청하면 곡차를 마시고는 하루 종일이라도 법문을 했다고 한다. 이런 광경을 자주 지켜본 시자가 '스님께서는 만인 앞에 평등하셔서 할 도인인데, 어찌 곡차를 대접하는 여부에 따라 그렇게 편벽하십니까?' 하는 항의성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시에 아직 안목을 갖추지 못한 만공 스님이 곡차를 대접하지 않은 수행자들이 불법의 도리를 물었을 때 경허 스님이 침묵한 것을 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본 것은 물론 잘못된 견해이다. 경허 스님이 묵묵부답한 것은 마치 유마 거사가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묻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양구(良久), 즉 '잠자코 말하지 않은 默然無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를 한번의 묵언이 우뢰와 같은 법문이라 해서 '일묵여뢰(一默如雷)'라고 한다. <유마경> '불이법문품'에 보면, 여러 보살들이 저마다 불이법문에 드는 견해를 말하고 나서,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냐?" 고

물었다. 이에 문수보살은 "내 뜻으로는 모든 법(진리)이 말할 것도 없고(無言), 이를 것도 없으며(無說), 보일 것도 없고(無示), 알릴 것도 없어서(無識), 모든 질문과 대답을 초월한 것(離諸問答)이 바로 불 아닌 법문에 들어간다"라고 대답한다. 이어 문수보살은 유마 거사에게 물기를 "무엇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니, 유마 거사가 이때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문수보살이 찬탄하며 "좋고도 좋습니다(善哉善哉). 글자도 언어도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돌아난 법문에 들어간다" 라고 찬탄한다.

개념과 인식의 차이를 초월한 말없는 대답을 본 문수보살이 유마 거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위 신문답에서 경허 스님의 양구를 이해한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을 것이다. 양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곡차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허 스님은 안주 삼아 마치듯해 불법을 논할 뿐인 것이다.

불법은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에 한 법도 설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일체 법을 설해야만 불법이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8만4000 법문을 설하시고도 한 글자도 설한 바 없다고 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고인들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면 경을 비방한 것이요, 한 법이라도 설한 바가 있다면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다'고 했다.

입을 열면 불·조사의 뜻에 어긋나고 입을 닫으면 불법을 전할 방도가 없으니, 과연 어찌 해야 할까. 누가 불법을 물으면 경전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경전을 자유자재로 굴리며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삼계가 마음이고 만법은 인식일 뿐”

송찬우 교수, 경전연구소 동현학림서 '유식특강'...입문서 '백법명문론' 교재

3월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국 1호빌딩 407호에 자리잡은 경전연구소 동현학림(東玄學林). 장명수(54) 스포츠한국 편집위원이 죽비 세 번을 치면서 시작된 송찬우(56) 중앙승가대 교수의 유식(唯識) 특강 첫 시간. 유식 입문서인 <백법명문론(百法明門論)>을 교재로 경전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함께 하는 이번 강의는 <백법명문론>의 서론격인 '백법론의(百法論義)' 첫 구절에서 감산덕형(1546~1623) 선사가 유식의 핵심을 드러낸 법문으로 문을 열었다.

"부처님이 대장경의 가르침을 설하신 것은 단지 '삼계가 오직 마음(三界唯心)'일 뿐이며, '만법이 오직 인식(萬法唯識)'일 뿐임을 설하신 것이다."

불교의 종지를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으로 설파한 감산 대사의 이 한 마디로 첫 강의는 이미 종강을 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그 어렵다는 유식은 물론이요 참선을 비롯한 모든 수행법의 시작과 끝이 오직 이 도리를 깨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 등지에서 올라 온 다섯 명의 스님을 비롯한 20여 수강생들은 감산 대사의 명쾌한 법문과 송 교수의 안목으로 다시 드러난 강의에 환희심을 내며 법문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며 일심(-心)의 도리를 집중했다. 선이력을 중심으로 한 경전 강의의 권위자인 송 교수의 강의는 한자 원문을 하나 하나 새겨가면서 숨은 뜻을 드러내어, 매순간 공부인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주고 있었다.

"지금 생명(性)하는 감정을 잊고 성인과 범부를 세우지 않으며 일심의 근원을 극진하게 안다면 상대적인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현상(相)에 나아가지만 본성을 회복(卽相歸性)'하는



동현학림의 유식특강에 참가한 20여명이 진지하게 '백법명문론' 강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송찬우 교수.



과 대상(境) 상대해서 있었으며, 망상과 분별이라는 인연의 그림자가 있었는가? 원래 이 마음과 대상은 모두 '밝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無明不覺)'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에 미혹해서 식(識)이 있게 된 것으로 본다. 유식(唯識)이 변화해서 견분(見分: 주관의 인식 기능)과 상분(相分: 주관의 대상)의 두 종류를 일으킴으로써 견분은 마음이 되고, 상분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연과 대상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추한 것을 '취하거나 버림(取捨)'하는 것이 모두 허망한 인식(妄識)일 뿐이다.

결국 마음과 대상이 '오직 인식(唯識)'임을 안다면 분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분별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원만하고 밝아져서 모든 현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유식의 수행관이다.

송 교수는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의 도리를 일깨우기 위해 그 무수한 교리와 수행방편이 등장하고, 그 많은 이름과 모양으로 일깨우려 일심을 증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아아라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 어떤 교화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본성과 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舍相歸性, 舍離一心)"고 첫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매주 월 오후 7시에 '유식 특강'을 진행 중인 동현학림은 매주 토요일 4명(明代) 내지덕(來知德) 선생이 저술한 <주역집주(周易集註)>를 교재로 '주역 강좌'도 열고 있다. 동현학림에서는 송 교수의 강의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백암록' <능가경> <장자해(莊子解)> <능엄경> <대승기신론> <화엄경심지품> <법화경> <천태소지관> <조론> 등의 강의 테이프를 제공한다. (02)732-3038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e6@hanmail.net

최고의 법칙이다."

감산 대사는 본래 또는 본성인 성(性)과 현상 또는 형상인 상(相)이라는 대립적 존재를 하나의 근원(일심)으로 회통하고 있는 것이다. 송 교수는 "감산 대사가 유식(唯心)에 의거해서 본성의 공(空)을 주장하는 성종(性宗)과 유식(唯識)에 의거해서 현상세계의 여실한 모습을 주장하는 상종(相宗)의 분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명대의 대표적인 선사인 감산 대사가 유식을 해설한 것은 유심사상이 단지 교화의 틀에 갇혀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맹목적 수행만을 강조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산 대사는 <백법론의>에서 교(教)와 선(禪)을 회통해 깨달음의 길에 이르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꽃을 들어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敎外別傳)' 뜻으로 삼으니 곧바로 일심을 가리켜 본래는 미혹과 깨달음이 있지도 않았고, 성인과 범부에 귀속되지도 않는다는 말

이다. 지금 말마 대사가 전수한 선종이 이것이다. 그것은 가르침 가운데서 수행하고 일심에 의지해서 그 깨달아 들어간 경지를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생멸문(生滅門)에 의지해 깨달아 진여문(眞如門)에 이르기까지 이를 궁극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다."

유식에 대한 감산 대사의 깨달음을 역시, 선과 교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수행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분별하면 인식(識)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지혜이며, 식(識)은 더러움에 의지하고 지혜는 깨끗함에 의지하며, 더러우면 생각이 있고 깨끗하면 모든 부처도 없어진다. 나는 이로부터 유식의 종지를 깨달았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유식에서는 '하나이면서 참다운 진리의 세계(-眞法界)'에서 원만하고 밝은 '오묘한 마음(妙心)'은 본래 한 물건도 없기에, 몸과 마음과 세계의 현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각기관(根)

수행계시판

'깨달음의 장' 수련
문경 정토수련원은 3월 28일~4월 1일, 4월 4~4일, 4월 18~22일 각각 '깨달음의 장' 수련을 갖는다. 수련은 김화선, 영불, 위빠사나 등 수행법을 초월해 늘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의 삶을 체언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054)571-6031

종일반 심념처 수행자 모집
한국위빠사나수련원은 서울 청호불교

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참선의 자세와 종류, 선종 발달사, 화두의 중요성, 화두 참구법 등. (02)732-5960

정토사 염불정진법회
정토사 만일염불경사회는 3월 17일 오후 8~11시 염불정진법회를 개최한다. 청명(稱名)염불, 관상(觀像)염불, 관념(觀念)염불, 실상(實相)염불 등을 회주 보광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031)723-9797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황상(黃上)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방향을 잘하고 자중 자제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삼고금강저 건강자동차벨트는 고급 천연소 가죽에 벨트메탈과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벨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고 매달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롭히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여성용 銀나노 지갑

옴마니반메흠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일들이 신통토록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인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토록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지 않게 하는 팔십상보병과판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금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까지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로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지갑95,000원 남성용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약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화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禪)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양도 모르는 협한세상 남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